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2. No.4. pp. 46~55 (1998)

韓國 衣類産業의 歷史的 考察*

- 朝鮮時代 衣類産業의 生産과 流通方式 -

柳 孝 順*·卞 裕 善
*彗田大學 衣裳디자인과 副敎授,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衣裳學科 博士課程

A Study on the Historical Investigation of Korea Apparel Industry

-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Clothing in the Chosun Period -

You, Hyo Soon* and Byun, Yoo Sun
Association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yejeon College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ung Kyun Kw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itute the historical connection of apparel industry by investigation on development and upbringing policy of our apparel industry.

Because of the administrative idea of Chosun period is Confucian idea and feudal class system based on the Confucianism, the agricultural industry is the most important one, and developed the economic thinking system that agricultural industry is the foundation of clothes and food industry.

In the clothing manufacture of Chosun period, a garment which used in the royal household selected manual industry form by government establishment, but a garment which used in the people selected manual industry form of private.

The commerce of Chosun period is based on the official commmerce (Sijeon) connected with the official system of state and the private commerce is operated by private trader. Among the item which was traded on the market in this times, the cloting item is the important trade item second only to the grain, and was dealed with every market in the country.

Ⅰ. 서 론

직물을 포함한 의류산업은 인간의 의식을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 품목이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 발달단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육성되어져 왔다.

고문헌에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자급자족적인 농경생활 가운데 의복재료를 생산하고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삼국시대부터는 唐, 晋, 宋, 日本 등과의 활발한 교역을 이루었으며, 우리나라의 의복재료 생산기술을 일본으로 전파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의복재료의 생산과 교역의 발전이 고려의 면포생산과 公·私貿易을 통한 수출입을 통하여 더욱 활발해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여성노동력에 의한 의복재료의 생산이 산업발전을 계속적으로 이루게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직물은 의류의 재료였을 뿐만 아니라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주요한 교역품이었고, 國富의 원천인 산업으로서 국가적으로 장려되었다.

* 본 연구는 1997년도 혜전대학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또한 개항과 더불어 급속한 서구 문물의 유입이 시작되는 개화기를 거쳐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류산업은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의 단계를 벗어나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어 나가면서 산업 발전이나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중요시 되어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류산업이 국가적인 산업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와 변화를 보여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의류산업이 국가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여왔으며 어떻게 육성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의류산업의 사적인 맥락을 구성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의류산업의 발전 양상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기 위하여 문헌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는 조선시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조선왕조 실록 등의 고문헌과 관련 논문을 통해 의류산업구조의 역사적인 변화상을 조사하였다. 의류산업은 크게 생산과 유통부분으로 나누어 시대에 따른 직물과 의복 생산 방식과 의류 유통 방식의 변천에 대해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Ⅱ. 朝鮮時代 商工業의 特徵

고려말의 사회적 혼란과 동요가 조선 왕조의 탄생으로 수습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조의 창건은 바로 불교적 통치이념에 대한 주자학적 통치이념의 승리였다. 주자학의 보급과 병행하여 三綱五倫思想은 가치의 기준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모든 경제행위는 삼강오륜이란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하여지게 되었다. 삼강오륜은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와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강조되어졌고, 利潤 追究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리는 이와 같은 대의명분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따라서 조선조에서 경제 행위 자체에 대해서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윤 추구를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양반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조에 비하면 한층 현저한 편이었다.

조선왕조의 통치관은 주자학적 예속론과 그것을 기준으로 한 봉건적 신분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사회와 경제를 안정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의·식생활의 근본이라는 경제적 사고방식을 한층 체계화하였다. 조선조 역대 임금의 重農政策과 農書發刊 사업은 이러한 경향을 잘 나타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유교 및 한문의 보급으로 지식인들의 표현능력은 향상되었고, 삼강오륜이 강조되어 청빈을 미덕으로 여기게 됨에 따라 農本思想은 한층 체계화되어 士·農·工·商의 우선순위가 더욱 뚜렷해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 공·상업은 末業으로 간주되었는데,[1] 그것은 상공업이 발전하면 그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따라서 농업이 쇠퇴함을 면치못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근본이 되는 산업에 힘쓰고 末業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배층이 필요로 하는 상품은 어용적인 市棁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었고, 그이외에 제조와 상거래는 단지 영세민의 생계를 위하여 묵인되어졌다. 조선왕조는 士·農·工·商의 四民觀을 바탕으로 상업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는 한편으로는 이를 장악하여 국가의 관여와 조정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경제구상에 따라 정부는 실제로 전담할 사람을 지정·육성하여 상업을 맡기고, 그 활동을 국가에서 파악한다는 방침을 견지하였다.[2] 도성의 市棁商人과 지방의 船商, 陸商 등 行商이 바로 국가가 허용하고 또 장악·통제하고 있는 상인이었다. 정부는 도성에서는 市棁, 지방에서는 행상제도의 실시를 통해 농민의 축말경향을 단속하고 있었다.

수공업과 상업의 관계는, 공업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상업보다는 생산적이라는 명분으로 우선순위가 상업보다 위에 속하지만 한편 이윤을 추구하는 수공업자들의 행위가 상인의 그것과 다름이 없고, 상공업이 완전히 분화되지 못하여 수공업자가 판매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업도 상업과 마찬가지로 末業視되었다. 상공업을 말업시하는 현상 때문에 생산역 증대나 교환경제의 발달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고, 이러한 정체상태가 계속되어지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자 국가경제는 극도로 피폐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정세에 대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자각이 일기 시작하여 일부 관료를 중심으로 實

事求是 無證不信을 주장하는 實學思想이 대두하게 되었다. 실학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산과 생활에 있어서의 '利用·厚生'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학파들은 수공업과 상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였고 양반과 평민의 상하관계, 士·農·工·商을 차별하는 職業上의 貴賤觀을 배격하였다. 비록 실학파의 사회혁신적인 사상이 집권층에 의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조선후기의 사회는 이미 전통적인 가치체계에서 이탈하여 근대적 산업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이념적·정신적 변모를 보이고 있었다. 농업생산의 위축, 화폐경제의 등장, 상업의 발전, 부에 대한 가치 강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업자본이 성장하게 되었고,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성장한 상업자본은 부분적이지만 생산부문에도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외국과의 무역의 경우 조선조 전기에는 사신일행을 통한 公貿易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규제되졌으나, 조선조 후기로 가면 종래의 봉건적 법망을 뚫고 이루어지던 潛市潛商 등의 활동 규모가 점차 증대되었다.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互市가 열리고 일반 상인들 주도로 대외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倭館貿易도 서울의 市棍 및 기타 富商들과의 관련이 깊어졌다. 특히 國境開市는 국제간의 지리적·사회적 생산력의 불균형을 메우기 위한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처음에는 密貿易의 성격이 농후하였으나 차츰 공인되어갔다.

수공업과 상업에 대한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산되었던 조선시대의 의류산업도 자급자족을 위한 기본적인 생필품 생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의복 재료의 생산 및 의복의 제작은 농업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산업이었고, 주요한 物品貨幣였던 布는 米와 함께 오랫동안 교환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수공업은 관영수공업(官匠制)과 사영수공업(私匠制)으로 나뉘며 조선 전기에는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관영수공업이 우세하였다. 중앙의 工曹 등 여러 관아에 예속되는 장인을 京工匠, 지방의 감영이나 邑衙에 소속된 자를 外工匠이라 하고 이들은 모두 工匠案(匠籍)에 소속되어 관의 통제를 받았다. 신분은 良人도 있지만 公賤이 대부분이며 관의 요구에 따라 물품을 제조·납부하였고 公役을 지는 동안에 良人의 경우에는 일정한 녹봉인 체아(遞兒)과 流外雜織의 품계를 받을 수 있으며, 여분의 생산품은 工匠稅를 내는 대가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였다. 官奴匠人은 身貢으로 그치지만 良人匠人은 복무가 끝나면 자유롭게 수공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점차 수가 증가하였고, 그들의 전문적 기술과 함께 관청의 과다징수에 의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상공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조선조의 의류생산은 王室이나 중앙 관청 또는 지배층에서 사용되는 물품은 尙衣院이나 市棍과 같은 관허상공업 방식으로 생산·유통된 반면 평민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자급자족 형태의 민간 상공업 방식으로 생산·유통되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Ⅲ. 朝鮮時代 衣類産業의 生産方式

1. 官設 手工業 形態의 衣類生産

조선시대의 의류생산은 궁중에서 사용되는 의복은 관설 수공업 형태의 생산방식을 채택한 반면 평민들이 사용하는 의복은 민간 수공업 형태의 생산방식을 채택하는 이원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생활과 일반 서민층의 생활수준차가 컸던 조선시대에는 질박한 민간 수공업의 수준으로는 상류층을 위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제조하는 특수 기술자를 수용하기 위한 관설 수공업장의 설치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수공업장은 주로 중앙에 설치되었고 그 대표적인 기관이 尙衣院이었다.[3)]

조선왕조는 정치이념면에서는 고려시대를 지배하던 불교를 배제하고 새로이 수용된 주자학에 입각해서 성립되었지만, 정치제도면에서는 고려의 것을 대체로 계승하고 있었다. 조선의 개국초인 태조·태종대에는 조선왕조의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관제가 정비되었는데, 그 기본 구조는 여전히 고려 관제와 유사하였다. 그후 성종대에 經國大典이 완성됨으로써 조선왕조의 관제가 완성되었다. 조선시대의 궁중복식을 주관하였던 상의원도 이러한 관제 정비과정에서 설치되었으며 조선 후기까지 큰 제도적 변화없이 유지되다가, 고종 32년

(1895년)의 관제 개편으로 宮內府 소속의 尙衣司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尙方司로 바뀌게 되었다.[4]

상의원은 왕을 비롯한 왕족의 의복과 궁중에서 소요되거나 하사하는 일용품 및 금·은·보화 등의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正3品衙門의 工曹 소속 관아인데, 京工匠[5]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工匠을 보유할 정도로 큰 관청이었다. 상의원에는 綾羅匠, 鍊絲匠, 玉匠, 銀匠 등의 많은 工匠이 소속되어 있었고, 그 임무가 工匠과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工曹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6] 상의원은 왕족의 의복과 궁중에서 사용되는 일용품 및 금·은·보화 등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여 실록에도 상의원에 대한 공정하고 청렴한 감독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상의원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雜職이 설치되어 있었다. 잡직이라 함은 공상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관료조직에서 포용하는 직급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관직으로 출사할 수 있는 신분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가 운영상 필연적으로 그 관료조직 내에 직능이나 출신을 달리하는 官人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공상계층의 필요인력이 그것이었다. 신분을 중요시하였던 조선시대의 특성상 공상계급의 受職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많았으나 그들이 가진 특수한 기능이나 능력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재화라는 물질적 보상 보다는 관직을 주어 지속적으로 그 인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운영상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賤人階層을 위한 雜職의 설치였다. 이러한 잡직의 수직은 작업 능률을 올리는데 좋은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經國大典 工典 京工匠條에 보면 상의원 소속 68종 597명에 이르는 工匠 중 의류관련부문에 종사하는 工匠은 408명이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은 經國大典에 나타난 의류관련 工匠을 크게 4부문으로 정리하여 분류한 것이다.[7]

의류관련 工匠은 그 제작 분야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직조를 담당하는 綾羅匠·紡織匠, 염색을 담당하는 紅染匠·靑染匠·草染匠·荷葉綠匠, 실을 다루는 合絲匠, 縫製를 담당하는 針線匠, 다듬이질을 하는 砧匠, 의복에 부착하는 옥장식품을 제작하는 玉匠, 모피 장식을 만드는 毛衣匠, 군복의 띠를 만드는 多繪匠, 금박을 제조하는 金嚙匠, 매듭을 만드는 每緝匠, 머리를 장식하는 댕기를 만드는 都多益匠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업형태는 민간 수공업계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댕기를 만드는 都多益匠의 역할이 민간 수공업계에서는 針線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혁에 관련되어 분업화된 몇 가지 工匠의 역할이 민간에서는 染色匠에 의해 한꺼번에 수행되어졌다. 즉 이러한 정교한 分業化는 관설수공업장 내에서 보다 정교하고 품질높은 제품을 생산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인다. 또한 각 工匠들은 작업상 요구되어지는 기술상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다른 대우를 받았는데, 이는 조선시대에도 어느 정도 능력에 따른 대우가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부에서는 상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工匠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포상책뿐만 아니라 제재나 처벌도 많이 사용되어졌다. 조선시대의 공장들은 그들의 제작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관설 수공업은 어디까지나 왕실이나 관청의 소모품 생산을 위주로 영위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사사로운 제조를 제외하고는 그 원료나 제품이 대부분 관청의 관리하에 있었다. 따라서 그 제작활동이 그들의 개인적 이윤추구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었으므로 工匠들이 자신의 제품에 애착이나 도의적 책임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필연적으로 工匠의 태만과 제품의 저질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官匠制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工匠들에 대해서 심한 통제가 가하여졌다. 저질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관련자 모두에게 연간 할당 작업일수를 가중시켰으며, 원료나 제품의 도난시에는 훔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책임관에까지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졌다.[8]

왕실과 정부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상의원 所用 원자재는 지방행정조직인 읍(牧·府·郡·縣) 단위로 각 지방의 생산물을 참작하여 공물이나 진상의 명목으로 징납되었다. 중앙에 공물의 수납을 전담하는 관아가 없었기 때문에 中央各司는 소정의 물품을 각각 수납하였다. 따라서 상의원도 궁중에서 필

〈표 1〉 經國大典에 나타난 의류관련 工匠의 分類

部門	種類	人員數	種類	人員數
衣類·服飾類	綾羅匠	105	洗踏匠	8
	鍊絲匠	75	和匠	8
	針線匠	40	多繪匠	4
	紡織匠	20	草染匠	4
	擣砧匠	14	金嚙匠	4
	合絲匠	10	每緝匠	4
	紅染匠	10	荷葉緣匠	2
	靑染匠	10	裁金匠	2
	玉匠	10	都多益匠	2
	毛衣匠	8	都目介匠	2
			小計	342名
冠類	草笠匠	6	涼太匠	2
	紗帽匠	4	帽子匠	2
	網巾匠	4	毛冠匠	2
	襦笠匠	2		
			小計	22名
皮類	熟皮匠	8	生皮匠	2
	裏皮匠	4	態皮匠	2
	斜皮匠	4		
			小計	22名
신발類	靴匠	10	華兒匠	4
	皮鞋匠	8		
			小計	22名
合計				408名

요한 물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공물의 형태로 원료를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의복의 주요 재료인 직물의 경우 각 官司 소속 織匠들의 公役을 통해 생산되어졌다. 絹織物 생산의 경우, 15세기 정부의 강력한 勸蠶政策과 생산에 관련된 기술서적의 전래로 古來의 조잡한 견직물산업의 생산수준이 향상되었고, 나아가 16세기에는 농가의 부업으로 진전되어졌다. 15~16세기의 견직물 산업의 발달을 조사한 이 선명(1991)의 연구는 조선시대에 이미 직물 생산이 단순한 의복 재료 생산의 단계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산업이었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물 중 고급의료에 속하는 綾羅 등의 비단 종류는 질에 있어서 명의 것보다 상당히 뒤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조선왕조는 초창기부터 청렴한 기강 확립을 위해 紗羅綾綺와 같은 비단의 대명밀무역을 강력히 규제하였고 이렇게 사치스러운 직물의 착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9] 다만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紗羅綾綺를 비롯한 唐物은 赴京使行에 상의원 소속 관원을 통행시켜 公貿易한 輸入品으로 조달하였다. 견직산업의 부진은 주로 방적공정과 직포공정에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데 연유하였다. 정부에서는 명의 발전된 염색과 방직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綾羅匠을 파견하였으나 명이 외국인에 대한 기술교습에 제한을 두었기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견직물 이외의 綿布나 苧麻 등은 생산 수준이 높았기에 중국과의 교역시 수출품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의복에 소용되는 금이나 은은 工曹에서 그 채굴과 생산을 관리하였기에 工曹에 소속된 상의원에도 공급되어졌다. 그외 복식의 장식물에 필요한 珠玉은 얻는 대로 진상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연산군대에는 왕실의 사치로 인해 금·은·주옥류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는 역설적으로 국내 광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만들었다. 당시 주옥류의 광산을 개발하고 채굴하는 업무는 각도의 監司가 위임하였으나 채굴시의 기술적인 분야와 채굴한 鑛石의 가공부분은 상의원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채광 현장에는 반드시 상의원 소속의 玉匠이 파견되어졌다. 의복에 사용되는 모피는 주로 평안도나 함길도와 같은 북부지방에서 공출되어졌다.

상의원에서 제조된 물품들은 그 특성상 시장을 통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 물품들은 왕실이나 중앙 관청의 필요에 따라 수요처에 직접적으로 공급되었다. 다만 실록 등의 문헌을 보면 사행시나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 등의 명목으로 외부로 유출되었을 뿐이다.[10]

2. 民間 手工業 形態의 衣類生産

조선시대 민간 수공업 형태의 의류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산주체는 여성이었다. 의복 재료의 생산과 의복의 제작을 위하여 여성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이는 여성의 소임으로 강조되었다.[11] 당시 여성들이 주로 읽었던 內訓이나 戒女書와 같은 책을 보면 여성의 소임 중 음식 만들기와 바느질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폐쇄적인 가내 활동 중에 의생활과 관련된 자수, 봉제, 방적, 직포 등과 같은 작업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12] 더욱이 의복재료의 생산은 농가의 부업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이러한 생산이 비록 가내수공업 형태에 머물렀지만, 서민의 생활에 농업 다음가는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간의 의복재료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13] 정부 주도로 목화재배나 양잠에 관계된 책자를 발간하고, 왕실에서도 內蠶所를 설치하여 왕비나 세자빈으로 하여금 양잠을 익혀 장려하도록 하였다.[14]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직물 제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지방 특산물로 전해지는 각종 의복재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주로 국내에서 민간 수공업 형태로 생산된 의복재료는 綿織, 麻織 絹織類였다. 綿布는 고려말 문익점에 의해 중국에서 들여온 후 각 지방에 전파되었고, 가장 중요한 의복재료로 다루어졌다. 麻布도 지역적으로 고르게 생산되었으며 서민의 의복 제작에 주로 사용되어졌다. 絹織은 이미 오래 전에 양잠법이 전래되었지만 조선조 초기에 들어서야 비로서 양잠법이 광범위하게 전수되었다. 양잠에 대한 장려책으로 궁중에서는 왕비가 親蠶禮를 행한 것을 보면 견직산업이 국가적으로 중요시된 것을 알 수 있다.[15] 그러나 견직기술의 미숙으로 인해 고급능라의 생산은 미진하였고, 주로 紬布만이 직조되어졌다. 이렇게 고급견직이 생산되지 못한 이유로는 우선 원사 자체의 품질이 떨어져 저급품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방적과 직조 공정에 있어서의 기술적 미숙이나 숙련공의 부족도 고급견직 생산에 걸림돌이 되었다.[16] 이밖에 고급 견직물을 착용할 수 있는 신분이 제한되어 있었기에 그 수요처가 적은 편이었다. 따라서 고급 견직에 대한 공급은 자체적인 국내제작 보다는 명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IV. 朝鮮時代 衣類産業의 流通方式

건국초 이래로 조선 정부는 '務本抑末'의 경제정책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억말책은 어의 그대로 상업을 억압하는 정책이 아니라 상업과 상인의 활동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장악하여 국가의 조정을 강화하고 양반층의 지주, 소농, 전호농민의 逐末傾向을 억제한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구상에 따라 정부는 상업을 실제의 전담자를 지정하여 맡기고, 그 활동을 국가에서 파악한다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도성의 市廛상인과 지방의 船商·陸商 등 행상은 바로 국가가 허용하고 또 통제하는 상인이었다. 한편 상업정책의 또다른 이념으로 표방되었던 '利權在上'論은 상업을 국가가 독점하고 이를 사회관계상에서 '上'에 위치하는 양반 지주 위주로 운영해 가려는 이념이었다. 또 최고의 '上'이 국가인 만큼 상업과 관련된 이권을 국가가 최종적으로 장악·관리하여 상품교역에 적극적으로 간여해야 한다는 견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업논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정부가 직접 도성에 시전을 조성하고 운영하였다. 조선의 건국초부터 시전의 조성과 육성은 정부가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추진한 사업의 하나였다. 이는 시전을 통해 정부의 수요물품을 공급받고 국고 잉여품을 처분하는 한편, 도성민의 일상수요를 조달하기 위해서였다.[17] 도성은 각지의 재물이 집산되는 전국 최대의 소비도시였고 각도의 租稅穀과 제반 공물이 집중하여 처분되거나 貿納되는 곳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시전은 최대의 상업자본 상인조직으로서, 도성의 상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도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던 전국상업망을 좌우하였던 상업세력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시전 조성과 운영은 단지 정부와 도성민의 일상수요를 조달하는 기구로서의 시전 정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를 매개로 전국의 상업과 상인을 파악하고 통제하려는 상업정책에 따라 조성하고 관장되었던 것이다.

조선은 건국 후에도 상당 기간동안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수도로 유지하고 있었다. 개경에는 고려의 건국초에 세워졌던 시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고려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개경의 시전은 여전히 흥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종대에 이르러 도성이 한양으로 완전히 천도한 후, 정부는 개성 시전의 開市를 금지하면서 구도의 상인들을 한양의 鐘樓를 중심으로 조성한 市廛行廊으로 강제 이주시켰다.[18] 한편 시전행랑에는 수공업자들 또한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工商'層이었다. 이와 같이 수공업자 자신이 상품의 제조자이자 판매자로 활동하는 것은 당대 상공업이 아직 전문화되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후 상인이 시전내의 工商 세력을 제

압하여 생산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구조가 재편되어진다. 官設 公廊에서 영업하는 시전상인들에게는 市役이 부과되었다. 일종의 세금이었던 商稅,[19] 국가의 臨時 수요물이나 외국 사신의 요구물품을 조달하거나 그들과의 무역에 응해야하는 責辯, 國葬이나 山陵의 조성공사에 出役해야 하는 雜役 등이 市役의 의무였다.[20] 대신 국가의 보호 육성을 받으며 도성내 물품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받았다. 도성의 인구가 증가하고, 貢物의 京中防納·貿納 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시전은 확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성종대에 이르면 기존에 설정된 시전 구역이 확대되고, 시전재편 사업이 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전은 '座主', '有司' 등의 직임을 갖춘 조직체계를 정비해갔으며, 나아가 그들의 상권을 국내외로 확대시키고 있었다. 당시 국가가 시전의 시역 부담을 責辦·雜役을 중심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시전의 확대발전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조선조 상업은 국가의 공적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시전상업과 함께 사상인과 민간상업을 기반으로 하였다. 시전 위주의 상업질서가 자리잡고 있었던 조선초부터 도성에는 이미 비시전계 사상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성내 각처에서 場市의 형태로 열리던 巷市의 영세소상인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들은 도성민의 조석마련과 관련한 교환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상인이었다. 시전상인들이 정부와 관료·양반사대부 등의 수요와 관련된 사치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거래에 치중하였다면 이들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 생필품 거래에 종사하였다. 이들의 상업활동은 시전체제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도성민의 편리를 위해 소규모로 행하여졌던 관계로 정부의 억말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인정되어졌다. 또한 그들의 자본이나 영업 규모가 시전의 상권을 위협할만한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시전상인들은 이들에 대해 별다른 견제나 반발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이후 농업변동과 축말경향에 따른 도성인구의 증가, 납세체계의 변화, 대외무역의 발전 등의 현상은 도성의 상업도시적 성격을 강화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시전상업이 번성하는 동시에 비시전계 사상인 역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성에서도 시전상인 이외에 새로운 상인세력이 대두되었고, 이들이 시전의 상권을 잠식하게 되면서 상권분쟁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비시전상인으로서 이후 亂椵이라 불리우던 사상인 세력이 성장한 결과였다.[21] 당시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市椵禁亂의 일환으로 통제하는 한편 이미 富商大賈로 성장해버린 이들 중의 일부를 시전에 편입시켜 시역을 부과함으로써 시전 위주의 도성 상업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22]

한편 지방에서도 한 지역 내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지 않아 인근의 다른 마을과의 물물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생겨났고, 이러한 상품의 교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정기적으로 시장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방의 시장을 특히 鄕市라고 하였는데, 조선 초기에는 한때 패쇄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그 기능과 규모가 감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향시는 조선 중기 이후 다시 활발해져서 전국적으로 정기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잉여농산물과 가내수공업 생산방식의 의복재료나 지방 특산의 의복재료의 교환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23]

정부의 억말책 아래에서도 상업은 상인, 교역기구, 상품교역 등 그 제 분야에서 더욱 확대되어 갔다. 또한 지주·대농과 소농경제의 상업과의 관련은 더욱 밀접해져갔고, 이에 따른 분화 역시 격심해졌다. 이런 사정에서 상하를 막론하고 각 계층의 축말풍조는 더욱 확산되고 심화되는 추세였다. 이러한 상업발전의 한편에서는 새로운 생재관이 등장하여 利權在上의 이념에 근거한 국가의 적극적인 상업파악과 말업을 통한 財政補用政策이 모색되어졌다. 서민들의 축말을 금지하는 억말책 또한 이러한 상업인식의 전환에 따라 실제 정책상에서 점차 쇠퇴하여 갔다. 무본억말로 표현되었던 조선 정부의 상업론과 상업정책이 근대적 상업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의복 재료 생산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전, 선상, 객주, 보부상 등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교환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시장이 등장하는 시기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한양이나 개성과 같은 주요 도시에 판매품목별로 완전히 체계화된 상설시장인 시전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때 생긴 시전에서 의복 재료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중

국산 비단을 판매하는 椵, 무명을 파는 綿布椵, 국산 綿布와 明紬를 판매하는 綿紬椵, 모시와 황모시를 파는 苧布椵, 中國産 삼승포와 양털 모자를 파는 靑布椵, 남녀의 의복을 파는 衣椵, 씨를 뺀 솜을 파는 綿子椵, 여러 종류의 가죽신을 하는 履椵, 유정혜를 파는 鍾樓椵, 여러 가지 당사실과 실, 갓끈, 띠 등을 판매하는 眞絲椵 등이 있었다.

〈표 2〉 八城 市場의 의류 관련 거래 상품

商品類	去來 商品의 種類
織物類	棉花, 綿布, 麻骨, 白苧布, 黃苧布, 生苧布, 春布, 明紬, 紬緞, 班細, 交織, 繭絲, 野繭絲
冠鞋類	笠子, 平涼子, 巾, 皮鞋, 麻鞋, 草鞋
皮 類	虎皮, 態皮, 獐皮, 鹿皮, 黃弧皮, 山羊皮, 皮, 水獺皮, 豹皮

1830년대 저술된 林園經濟志에는 조선 후기 八城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主要物品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의류 관련 거래 상품은 〈표 2〉와 같다.[24]

시장에서 유통되는 직물류는 綿布·麻布·絹·布·布木帛 등의 농산가공품이 유통되었는데, 특히 綿布의 출시율이 높은 것은 의복재료로서 서민들의 필수품이었고, 보조화폐로서도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綿布의 원료인 棉花도 주요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시기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의류관련 상품은 곡물 다음으로 중요한 거래 품목이었으며 〈표 3〉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시장에서 취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25]

〈표 3〉 19세기 직물의 出市場 數

地 域	경 기	호 서	호 남	영 남	관 동	해 서	관 서	관 북	합 계
市場數	34	53	53	71	26	23	42	14	316
綿 布	32 (94%)	18 (34%)	39 (74%)	68 (96%)	24 (92%)	23 (100%)	42 (100%)	13 (93%)	258 (82.3%)
麻苧布	20 (59%)	15 (28%)	35 (66%)	54 (76%)	20 (77%)	17 (74%)	1 (2.4%)	13 (93%)	175 (55.4%)
明 紬	3 (8.8%)	4 (7.5%)	15 (28%)	21 (30%)	9 (35%)	5 (22%)	14 (33%)	2 (14%)	73 (23.1%)

팔도의 전국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직물유는 綿布, 麻布, 明紬, 모시 등이었는데, 특히 경상도 진주의 면포, 충청도의 苧産八區 (모시), 평안도의 合絲紬, 전라도의 厚紬가 유명하였다. 그러나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 시장의 특성상 明紬와 같은 고급직물이 취급되는 시장은 적은 편이었다. 冠鞋類는 갓·망건·신발 등의 수공업 상품으로 갓은 통영과 개성, 망건은 정주 등이 그 주산지였고 전국 시장에서 유통되어 거래되고 있었다.

조선시대 지방상업은 行商이 담당하고 있었다. 행상에는 육로를 이용하여 소규모 경량의 농촌사회 필수품을 거래하는 陸商과 수로·해로를 이용하여 대량 중량의 상품을 유통시키는 船商이 각기 활동하였다.[26] 행상은 서민층의 필수품 교역과 관련하여서도 필요하였지만, 특히 船商·大商은 양반 지주층의 지주 경영과 그 자본의 회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유형의 상인이었다. 육상의 경우에는 교역수단으로 주로 米·布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는 아직 공용의 명목화폐가 유통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布가 米와 함께 현물화폐로서의 기능과 이차적인 유통이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초에는 麻布가, 그리고 이후에는 綿布가 준화폐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田組, 戶布, 軍布, 保布 등으로 납부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상인들은 다양한 물자를 상품으로 유통시키고 있었다. 이들 물자 중에서 가장 먼저 상품화하여 교역되었던 것이 바로 穀物과 鹽, 그리고 직물이었다. 이 세가지 상품은 당시 교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큰 상품이기도 하였다. 당시 정부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이들 곡물과 염, 직물의 교역에 대한 관리·통제를 부단히 시도하였다. 상품의 교역과정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이를 운용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보충하고 利權在上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관교역은 양반 지주를 대상으로 한 교역을 제외하면 통상 抑賣買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역에서 관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민간차원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도

성 중심의 상품교역망이 형성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상업 발전은 穀物과 鹽, 직물과 같은 상품의 교역증대에 근거하여 전개되던 변화이고 발전이었다.

한편 외국과의 통상거래가 패쇄적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의복 재료의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계속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중국으로 가는 사신과 그 일행이 각 경유지나 북경에서 중국측의 요구 또는 우리측의 필요에 의해 公貿易을 행한 것에 비해 후기로 가면 의주의 무역상인들이 사신 일행을 따라 중국에 드나들면서 본격적인 私貿易을 행하였는데, 이를 後市貿易이라 하였다. 수출품은 주로 紅苧布, 黃苧布, 麻布, 紬를 보냈고, 수입품은 당시 국내사정상 고급 견직물이 생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급 비단류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고급 견직물은 주로 왕실과 고급 관리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어졌다.

V. 결 론

조선왕조의 통치관은 주자학적 禮俗論과 그것을 기준으로 한 봉건적 신분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사회와 경제를 안정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의·식생활의 근본이라는 경제적 사고방식을 한층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 공·상업은 말업으로 간주되었는데, 그것은 상공업이 발전하면 그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따라서 농업이 쇠퇴함을 면치못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근본이 되는 산업에 힘쓰고 말업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상공업에 대한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산되었던 조선시대의 의류산업도 자급자족을 위한 기본적인 생필품 생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의류생산은 궁중에서 사용되는 의복은 관설 수공업 형태의 생산방식을 채택한 반면 평민들이 사용하는 의복은 민간 수공업 형태의 생산방식을 채택하는 이원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생활과 일반 서민층의 생활수준차가 컸던 조선시대에는 질박한 민간 수공업의 수준으로는 상류층을 위한 생활필수품을 생산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제조하는 특수 기술자를 수용하기 위한 관설수공업장의 설치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수공업장은 주로 중앙에 설치되었고 그 대표적인 기관이 상의원이었다.

상의원은 왕을 비롯한 왕족의 의복과 궁중에서 소요되거나 하사하는 일용품 및 금·은·보화 등의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정3품아문의 공조 소속 관아인데, 京工匠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工匠을 보유할 정도로 큰 관청이었다. 상의원에 소속된 의류관련 공장은 보다 정교하고 품질높은 제품을 생산하려는 목적에서 세부적으로 분업화되어 졌다.

상의원에서 제조된 물품들은 그 특성상 시장을 통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 물품들은 왕실이나 중앙 관청의 필요에 따라 수요처에 직접적으로 공급되었으며 사행시나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 등의 명목으로 외부로 유출되었을 뿐이다.

한편 조선시대 민간 수공업 형태의 의류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주체는 여성이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비록 가내수공업 형태에 머물렀지만, 서민의 생활에 농업 다음가는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간의 의복재료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정부 주도로 목화재배나 양잠에 관계된 책자를 발간하고, 왕실에서도 內蠶所를 설치하여 왕비나 세자빈으로 하여금 양잠을 익혀 장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직물 제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지방 특산물로 전해지는 각종 의복재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건국초 이래로 '務本抑末'의 경제정책을 표방하였던 조선조 상업은 국가의 공적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시전상업과 함께 사상인과 민간상업을 기반으로 하였다. 시전상인들이 정부와 관료·양반사대부 등의 수요와 관련된 사치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거래에 치중하였다면 이들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 생필품 거래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이후 농업변동과 축말경향에 따른 도성인구의 증가, 납세체계의 변화, 대외무역의 발전 등의 현상은 도성의 상업도시적 성격을 강화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시전상업이 번성하는 동시에 비시전계 사상인 역시 성장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의복 재료 생산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

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전, 선상, 객주, 보부상 등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교환되었다.

한양이나 개성과 같은 주요 도시에 판매품목별로 완전히 체계화된 상설시장인 시전이 존재하였는데, 의류와 관련된 시전으로는 중국산 비단을 판매하는 椵, 무명을 파는 綿布椵, 國産 綿布와 明紬를 판매하는 綿紬椵, 모시와 황모시를 파는 苧布椵, 中國産 삼승포와 양털 모자를 파는 靑布椵, 남녀의 의복을 파는 衣椵, 씨를 뺀 솜을 파는 綿子椵, 여러 종류의 가죽신을 하는 履椵, 유정혜를 파는 鍾樓椵, 여러 가지 당사실과 실, 갓끈, 띠 등을 판매하는 眞絲椵 등이 있었다.

지방의 시장에서는 직물유는 綿布·麻布·絹·布·布木帛 등의 농산가공품형태의 직물이 주로 유통되었다. 이러한 향시는 조선 중기 이후에는 전국에 걸쳐 정기시 형태로 발달하였는데, 대부분의 잉여농산물과 가내수공업 생산방식의 의복재료나 지방 특산의 의복재료의 교환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의류관련 상품은 곡물 다음으로 중요한 去來 품목이었으며 전국의 모든 시장에서 취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國譯版 朝鮮王朝 實錄, 中宗朝 11年 5月.
2. 朴平植, 朝鮮 前期 商業과 商業政策,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p.21.
3. 姜萬吉, 手工業, 韓國史 10, 國史編纂委員會, 1981, pp.356～357.
4. 高福男, 尙方定禮, 國學資料 35권, 1980, pp.1～2.
5. 京工匠이란 漢城府의 工籍에 등록되어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던 공장으로 가장 전문적인 수공업자라 할 수 있다.
6. 안애정, 朝鮮 前期의 尙衣院,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7. 經國大典, 註譯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8. 國譯版 朝鮮王朝 實錄, 世宗朝 12年 4月.
9. 國譯版 朝鮮王朝 實錄, 中宗朝 35年 7月.
10. 國譯版 朝鮮王朝 實錄, 成宗朝 8年 1月 ; 中宗朝 3年 9月3.
11. 李能和, 朝鮮女俗考.
12. 심화진, 朝鮮時代 衣服 材料의 生産과 流通에 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34권 1호, 1994, pp.22～24.
13. 增補文獻備考, 卷一四十七, 田賦考, 務農條.
14. 經國大典, 戶典, 蠶室條.
15. 이선명, 15·16 世紀 養蠶政策과 그 成果, 韓國史論 24, 서울대학교, 1991.
16. 최병희, 우리나라 古代 실크 製造 技術 考察, 農學研究 10권 2호 서울대학교, 1985.
17. 朴平植, Op. cit, p.38.
18. 金龍國, 朝鮮王朝의 開創과 漢陽遷都, 서울육백년사 1권, 1977, pp.157～190.
19. 朝鮮經國典 上, 賦典, 工商稅.
20. 朴平植, Op.cit, pp.49～56.
21. 金永鎬,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都市商業의 새로운 展開, 韓國史研究 2號, 韓國史研究會, 1968, p.214.
22. 白承哲, 朝鮮 後期 商業論과 商業政策,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pp.208～209.
23. 申蓮湜, 朝鮮 後期 商去來形態와 流通構造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p.14.
24. 林園經濟志, 兒圭志 卷第三, 貨殖.
25. 林園經濟志, 兒圭志 卷第三, 八城市場.
26. 經國大典, 卷2, 戶典, 雜稅.